"제10회 정보문화의 달"을 앞두고

김 정 원
(한국정보문화센터 본부장)

I. 개 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정보이용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지역간·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코자 1988년부터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은「정보문화의 달」제정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정보화시책을 추진한 실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더욱 빠르게 진전하는 정보화에 친숙하게 적응하고, 정보통신 이용기술의 이용혜택을 고르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6월이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된 것은 1967년 6월 24일 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컴퓨터(IBM 1401)가 설치되고, 1987년 6월 30일 우리나라 전기통신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전국전

화자동화가 완성되어 전화적체가 해소된 우리나라 정보통신사의 기념비적 일들이 6월에 있었기 때문이며, 특히 6월 24일은 우리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에서 「정보문화의 날」로 정해서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해오다 국가적인 행사로 격상시킨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참고로 해외에서의 유사행사를 소개하면, 일본은 1973년 통상산업성주관하에 10월 첫째주를 "정보화주간"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82년부터 기간을 연장하여 10월 한달을 "정보화월간"으로 지정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으로 2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대만은 1980년부터 12월의 둘째주를 "정보주간"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85년에는 "정보의 달"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총통"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비중있는 행사로 여겨지고 있다.

싱가폴은 1983년 12월에 "Singapore Information Week"를 개최하고 1984년과 1985년은 생략하였다가 1986년 국가정보기술계획(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Plan;IT PLAN) 발표후 1987년부터 "Information Technology Week"로 변경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Ⅱ. 행사실적

초창기에는 강연, 세미나, 기념식 위주로 행사가 추진되다가 정보통신기반이 갖추어져 가면서 시연회, 전시회 등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강연회 등도 지방으로 확산되고, 세미나의 내용도 농어촌등을 중심으로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해외 정보화 교류등도 시행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인터넷 관련 행사도 개최되는 등 기술의 발전과 이용보급에 맞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왔으며 실적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행사총괄

구분(년도)	행사수	참여기관	참여인원	행사주제
제1회(1988)	38	11	10만명	
제2회(1989)	42	12	14만명	
제3회(1990)	50	14	17만명	
제4회(1991)	68	17	22만명	
제5회(1992)	95	31	69만명	
제6회(1993)	121	34	72만명	“정보이용의 대중화”
제7회(1994)	100	37	70만명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제8회(1995)	132	34	85만명	“정보화를 통한 세계화”
제9회(1996)	105	37	90만명	“멀티미디어와 생활”

○ 연도별 행사 현황

구분(년도)	기념	시연	전시	강연	학술	공모	홍보 초청	기타	농어촌컴퓨터 교실 개소식	계
제1회(1988)	3		2	10	12	3	8			38
제2회(1989)	3		2	8	11	7	11			42
제3회(1990)	3		4	19	8	6	10			50
제4회(1991)	4		3	24	14	2	13		8	68
제5회(1992)	3		2	46	17	5	11		11	95
제6회(1993)	3		5	44	29	13	10		17	121
제7회(1994)	3	23	7	17	15	8	7		20	100
제8회(1995)	5	21	4	13	27	9	18	10	25	132
제9회(1996)	2	8	10	32	26	3	14	10		105

Ⅲ. '97년 계획

1. 행사기본방향

○ 6월이 정보통신인을 비롯한 범국민적 축제의 달이 될 수 있도록 6월에 행사를 집중하되 6월을 전후해서 행사를 분산개최함으로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급 자치단체의 행사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지역행사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정보문화확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 언론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많은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PC통신, 인터넷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행사를 추진하고, 홍보대상, 계층별로 특성에 맞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

2. 행사개요

○ 행사주제 : "정보화로 희망의 21세기를"

- 침체된 현재의 사회분위기에서 정보화를 통하여 미래의 꿈을 달성할 수 있다는 비젼제시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통하여 21세기 정보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범국민적인 참여를 유도

○ 참여기관 : 한국정보문화센터등 총 41개 기관

○ 행사규모 : 총 113개의 행사개최(약100만명 참관예상)

○ 성격별 행사

기념식	전시회	시연회	경진·공모	학술세미나	강연회	초청·홍보	기타	계
1	10	10	20	33	22	10	7	113

○ 행사특징

- 기존의 정보문화상(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3)이외에 정보화 추진에 공이 많은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정부포상 신설(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31명)

- 정부의 정보화 추진실적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고도정보사회의 비젼을 제시함으로서 대국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의 장으로 활용
- 정보화추진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해보고 내일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정보화 대토론회" 개최
- 게임SW산업진흥,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KOREA GAMES '97 개최
- 기술과 법 문제를 다루는 국제세미나 2건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 가족구성원 모두가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정보이용의 활성화와 건전정보윤리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정보가족 선정"과 "정보가족 캠프" 행사개최

Ⅲ. 결 어

지금까지의 전개방향은 하드웨어나 기술개발측면에 투자와 노력이 집중되어 온것이 사실이고, 상당한 실적을 쌓아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와 실제로 국민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의식, 제도 개선 등에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